

“전세대출 한도 달라지나요?”…규제 선회에 문의 잇따라

당국,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 예외 방침

전세대출 최대 5억…개인한도 영향은 없어

가장 증가율 낮은 신한은행 쏠림 해소 예상

금융당국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은행 A지점을 찾은 고객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냐”고 질문했다. 서울보증보험 최대대출가능한도가 줄어드는지 묻는 경우도 있었다.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비율이 다르고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이 지역 주변 고가 아파트 전세금액이 높아 가능한 대출을 많이 받길 원하는 고객들이 발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서울 구로구 B지점 관계자는 “지난주 전세자금대출 고객 상담과정에 지점별 한도로 상담 이후 가급적 빨리 대출을 접수하라고 안내한 고객들이 유선으로 잔금일을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은 통상적으로 상담을 받은 뒤 실행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 신청 의사를 밝혔더라도 미리 한도를 따로 잡아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 졸이던 고객들이 전날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C지점 직원은 “기존 상담 고객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 고객이 올해 안에 잔금대출을 신청하

면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있었다”며 “전세대출만 해당된다고 설명드렸고, 평소보다 상담이 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은 신한은행이다. 농협은행이 지난 8월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이후 육지가 조치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으로 대출 난민이 몰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에 신한은행에 전세대출을 문의하는 상담이 집중된 걸로 안다”며 “다른 은행들이 한시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니 일시적으로 신한은행에 몰린 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대다수 영업점 창구는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아직 전세대출 예외 방침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나은행이 농협은행에 이어 대출 한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전세

대출을 제외한 다른 가계대출은 우선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정부 기조에 따라 전세대출 등 실수요대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0일부터 ▲주택·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등 대다수 대출은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은행들의 조치를 보면 업계에서 어느 선까지 실수요 대출이라고 보는지 알 수 있다. 20일부터 상당수 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집단지금대출, 부동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오토론·세희망플러스 등 서민금융상품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이유로 계속 취급하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보기에는 전세자금 용도 자체가 명확하고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서도 “주택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



는 것에 대해 실수요로 볼 수 있는냐가 논쟁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도 제한해야 한다고 보면 대출 실행 단계에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주택 보유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 비실수요자를 구분할 수 있다”며 “대출 실행 이후 자금 유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4분기 전세대출 예외 방침으로) 주거대출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았던 고객들이 어디서 전세대출을 받는 게 더 나은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다음주 발표될 가계대출 추가대책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중국 진출 韓 기업 “화학 등 4분기 제조업 매출 늘 것”

산업연구원,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발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전기전자, 금속기계, 화학 등 제조업 매출이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는 이번 내용을 담은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17일 내놨다.

이번 조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7개 업종, 210곳을 대상으로 지난 달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진행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100 미만

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올해 4분기 매출과 경상이익 전망은 각각 118, 101로 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2포인트(p), 1p 올랐다. 지난 3분기 매출 전망은 116으로 2분기에 비해 10p 가까이 빠졌는데 1분기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현지 판매 전망도 118로 5p 상승했다. 반대로 한국 재판매와 제3국 판매 전망은 각각 3p, 11p 빠진 98, 97을 기록하면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시황 전망은 106으로 5p 하락하면서 전 분기 약세를 이어갔다. 경영

여건을 평가하는 항목인 영업 환경(98·-6p), 자금조달(90·+2p), 제도정책(84·-4p)도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영업 환경의 경우 3분기 만에 100 밑으로 내려갔다.

비용 항목에서 설비투자는 102로 1p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인건비와 원자재 구입은 각각 138(0p), 144(-2p)로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업종별 매출 전망을 보면 제조업은 117로 전 분기 대비 3p 상승했고, 유통업은 123으로 7p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116)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자동차 전방 BSI는 전 분기와 비교해 27p 큰 폭 하락했다.

이외에 화학(125·+8p), 금속기계(116·+7p), 섬유의류(107·+7p), 전기전자(106·0p)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113으로 4p 하락하면서 2분기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중소기업은 119로 3p 소폭 상승했다.

제조업 부문 경영 애로 사항에는 현지 수요 부진(21.7%), 원자재 조달난·가격 상승(17.2%), 인력난·인건비 상승(16.7%), 수출 부진(12.4%) 등이 꼽혔다.

이슬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젊은층에게 인기 끌었던 ‘우체국 영리한 체크카드’(2012년 9월 출시)를 환경부 인증받은 페플라스틱을 재 활용에 친환경 카드로 제작하고, 혜택

MZ세대 겨냥 ‘우체국 영리한 플러스 체크카드’ 내놓아

은 MZ세대 니즈에 맞춰 재구성해 ‘우체국 영리한 플러스 체크카드’라는 명칭으로 오는 18일 새롭게 출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주요 혜택은 코로나19 등으로 달라진 생활환경과 MZ세대의 소비패턴을 고려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결제 시 20%, 쿠팡, 배민 등 온라인쇼핑·배달앱 결제 시 15%,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 커피전문점·생활잡화 결제 시 5% 캐시백을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한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내달 30일까지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신규가입 후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한 고객(534명),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발급한 고객(1206명) 및

삼성페이 등 4대 간편 결제 등록 후 2만원 이상 사용고객(500명)에게 스타일러 등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ESG경영의 적극 실천을 위해 앱 이용자의 걸음 수만큼 친환경 기업 및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빅워크 캠페인 동참도 실시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21세기 사업경영의 화두가 될 ESG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많은 이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기업으로서 사회적, 친환경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카드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 경쟁 치열…왜?

개인사업자 CB 허가 받은 첫번째 사례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CB·Credit Bureau)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해 이들을 대출시장에 새롭게 유입시키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포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카드사의 경쟁력 원천이 데이터 활용에 있는 만큼 결제시장을 넘어 데이터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사업자 CB

업 분허가를 지난달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CB 허가를 받은 첫번째 사례다.

신한카드는 이번 분허가를 계기로 전통적인 금융정보 위주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가맹점 매출정보를 활용한 고유의 신용평가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외부 기관으로부터 통신 정보, 공공데이터 등 이종(異種)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신용평가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신용정보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중금리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도 각각 8월과 9월에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양사 모두 분허가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카드는 NICE평가정보와의 제휴 CB 서비스 출시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서비스 경쟁·노출을 촉진해 개인사업자 CB업 진출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나이스정보통신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CB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카드는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개인사업자 CB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삼성카드도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들이 앞다퉈 개인사업자 CB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데다, 개인사업자가 남긴 결제 정보와 비금융 데이터로 신용상태를 평가해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4~6월) 기준 85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103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유나 기자

승인 임박 ‘비트코인 ETF’…게임체인저 될까

이번주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사상 첫 거래 시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임박했다고 알려지면서 이번 결정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 SEC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전날 보도했다. 승인 예정인 비트코인 ETF는 프로셰어와 인베스코가 공동신청한 비트코인 선물 ETF다.

이번 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사상 첫 거래가 시작되게 된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 2013년 제미니 거래소 창립자인 윈클보스 형제가 최초로 SEC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가 제출됐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모두 반려된 바 있다.

올해도 SEC는 여전히 비트코인 ETF가 충분히 투자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승인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승인은 허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이를 감지한 운용사들은 선물 ETF 신청서 제출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가 암호화폐 시장에 줄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교차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를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이를 통한 게임체인저로 보는 이들은 모든 투자자가 비트코인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에 투자할 수 없기에 비트코인 ETF는 막대한 자금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봤다.

반면, 비트코인 ETF가 시장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이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는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을 어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라켄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주티카 추(Juthica Chou) 장외운선거래 본부장은 “예전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ETF 출시가 수요의 홍수를 일으킬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블룸버그의 퀵테이크 스톡(QuickTake Stock) 방송에서 “비트코인 ETF는 확실히 비트코인 생태계를 넓히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개인투자자나 리테일·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2017년보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기에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 있기에 이전보다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